

## 성문상부암에서 성문상 부분 후두절제술의 의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교실

태 경 · 민현정 · 이동욱 · 최준석 · 김경래 · 이형석

**목 적 :** 성문상부암의 치료시 일차적 목적은 종양의 완전한 적출이나 이와 더불어 호흡, 발성 및 연하와 같은 후두의 기능적인 보존이 중요하다. 성문상부암의 수술 방법 중 성문상 부분 후두절제술은 종양학적으로 후두전적출술과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기능적으로도 영구적 기관절개술을 피하면서 후두의 기능을 보존할 수 있어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성문상 부분 후두절제술의 종양학적 및 기능적 결과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방 법 :** 1991년부터 2004년 12월까지 성문상부암으로 성문상 부분 후두절제술을 시행받은 2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연령 및 성별, 병기, 원발부위 및 종양 침범부위, 치료성적 및 생존율, 술 후 합병증, 수술 후 발관 및 식이시기, 음성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병기는 2002년 AJCC 분류법을 사용하였고, 생존율은 Kaplan-Meier 분석법을 이용하였다.

**결 과 :** 연구 대상자 23명 중 20명은 남자, 3명은 여자였으며 연령은 46~75세(평균 61.3세)였다. 모든 경우에 경부청소술을 시행하였으며, 21례에서 술 후 방사선치료를 하였다. 종양의 병기는 T1 6례, T2 16례, T3 1례였다. 림프절의 병기는 N0 12례, N1 1례, N2 9례, N3 1례였

다. 임상적으로 경부 림프절 전이가 없었으나 예방적 경부 청소술을 시행한 N0 12례 중 6례에서 경부 림프절의 전이 소견을 보여 50%의 잠재적 경부 전이율을 나타내었다. 총 23명의 환자 중 3례에서 재발하였고 재발부위는 경부가 2례, 원격전이가 1례였다. 3년, 5년 무병 생존율은 각각 84%, 78%였으며, 경부 림프절 전이여부가 생존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p=0.03$ ). 전체 23명에서 발관이 가능하였으며, 발관 시기는 평균 술 후 20.9일이었다. 구강식이는 모든 예에서 가능하였고 시기는 평균 술 후 24.2일이었다. 술 후 합병증으로 술 후 출혈 2례, 육아종 형성 2례, 일시적인 흡인 4례였으며, 지속적인 흡인으로 인한 우중엽 증후군(middle lobe syndrome)이 1례 있었다. 음성검사상 Jitter 0.72%, Shimmer 4.95dB로 정상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였고, 조화음 대 잡음 비율은 17.76dB, 최대발성지속 시간은 7.14초로 정상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다.

**결 론 :** 성문상부암의 치료에 있어 성문상 부분 후두절제술은 종양학적 및 기능성 측면에서 우수한 술식으로 사료되며, 잠재적 경부 전이율이 높으므로 경부청소술을 병행해야 한다.